

# PET 및 NYLON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PET & Nylon Film

## 1. 서론

1회용 식품을 비롯하여 전기·전자용으로 쓰는 콘덴서용, 전선절연용 등 폭넓게 사용되어 온 폴리에스터(이하 PET) 필름 업계와 햄과 게맛살, 과자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나일론 필름 업계에는 원화가치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불황으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수년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온 PET 필름 시장과 해마다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온 나일론 필름 시장, 올 상반기는 어떤 모습인지, 본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 1. 폴리에스터 필름

#### 1-1. 시장 상황

PET 필름은 주로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등의 자기용(두께 7~10 $\mu$ m), 식음료 포장용(두께 12 $\mu$ m), 전기절연용(25~250 $\mu$ m), 콘덴서용(1~25 $\mu$ m), 그래픽용(100~150 $\mu$ m) 등으로 사

용되고 있다.

미주시장을 기준으로 세계 PET 필름 시장을 살펴보면 자기용 9%, 포장용 22%, 전기절연용을 포함한 산업용이 39%, 그래픽용 22%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자기용 18%, 포장용 33%, 전기절연용을 포함한 산업용이 30%, 그래픽용 19%로 포장용과 전기절연용에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PET 필름 시장은 1978년 SKC(주)를 시작으로 80년대 중반 새한, 코오롱, 서통, 90년대 후반, 고합,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태광뉴텍의 참여와 서통의 가동중단으로 7개사 체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2003년 1월 고합의 PET 필름 사업을 코오롱이 인수함에 따라 현재 6개사 체제를 이루고 있다.

국내 PET 필름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를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따른 가동을 상승으로 PET 필름 수요가 3~4%의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PET 필름 생산 규모는 약 175만

톤으로 약 20%의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 1-2. 포장용 PET 필름 시장

국내 PET 필름 시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포장용 및 산업용 필름 시장은 SKC, 도레이세한, 코오롱, 화승인더스트리, 효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효성과 화승인더스트리는 상대적으로 포장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장용 PET 필름의 경우, PET 필름이 갖는 다양한 기능성에 따른 수요처 확대 외에도 포장 재질의 고급화 및 포장 방법의 다양화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용 PET 필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식품 포장용과 산업용 PET 필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포장용 PET 필름은 가격에 비해 방습, 보향성, 투명성, 인쇄성 등의 물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해 PP 필름이나 OPP 필름 등의 시장을 대체 또는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패스트푸드 시장 및 인스턴트 시장의 빠른 성장, 식품의 고급화 등이 포장용 PET 필름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 1-3. PET 필름 생산업체 동향

#### 1)SKC(주)

국내 최대 PET 필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SKC는 일반 포장용 45%, 수축라벨용 40%, 증착용 6%, Twistable 5%, 기타 4%의 PET 필름을 생산하는 등 기존의 자기용 필름 생산라인을 전환, 산업용, IT용 필름의 생산 증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장의 고급화 및 친환경 추세에 따라 Twist 필름, 포장용 공압출 Matte 필름, Tensilizer필름, 초극박필름, 열수축 필름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SKC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세에 있지만 하반기 원자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한 필름 메이커들의 원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가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어 국내 필름

(표 1) PET 필름 생산업체 동향

(단위 M/T)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3	90,000	34,000	56,000
도레이세한(주)	8	96,000	41,240	52,650
(주)코오롱	7(해외1제외)	78,000	40,000	25,000
(주)화승인더스트리	1	15,000	9,000	6,000
(주)효성	1	15,000	8,000	7,000



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쟁 상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말에는 중국 안휘성에 위치한 중국 동봉전자와 콘덴서용 폴리에스터(PET) 필름 합작회사를 설립, 기술제공료 300만달러를 지분화해 25%의 비율로 투자했다.

이 신설회사를 통해 2006년 폴리에스터필름 생산라인을 준공, 연간 3,600톤의 콘덴서용 폴리에스터필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필름합작회사 설립으로 SKC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SKC의 박막필름 연간 1만 톤을 포함해 전기·전자용 박막필름 생산에서 세계 1위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이를 통해 SKC는 2006년부터 연 19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필름 생산업체들의 증설로 인해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내 생산과 판매의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SKC 관계자는 현재는 저가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확대와 판매 단가 인하에 따른 판매량 대비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포장용 필름의 매출성장율을 0%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고품질, 고기능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 2) 도레이새한(주)

PET 필름 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새한(주)은 지난해 기준 수출 41,240M/T, 내수 52,650M/T의 실적을 이뤘다.

현재 포장용 23.9%, 자기용 39.4%, 그래픽 20.0%, 기타 16.7%를 생산, 자기용으로 최대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도레이새한은 국내 시장의 경우 중국 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으로 범용품에서는 PET 필름 업계가 고전을 면키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역시 미주, 유럽은 자기용시장 등 트렌드변화로 인한 물량감소가 어느해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장용 등 범용품은 동남아시장에서 이미 중국에 선점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05년도 하반기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때 물량면서는 상반기 실적에 다소 못미칠것으로 보이나, IT 신소재 개발을 서둘러 착수함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도레이새한은 기존 범용제품에서 한발 물러서 IT 신소재 개발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화를 통해 Blue Ocean을 선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지난 달 14일 도레이새한은 연산 1만 3,200톤 규모의 투명광학용 폴리에스터 필름 전용라인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 500억원을 투자해 200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구미 2공장에 건설할 예정으로 필름공장이 완공되면 도레이새한은 폴리에스터 필름 연산 11만톤 규모로 국내 1위 필름메이커로 도약하게 된다.

광학용 폴리에스터 필름은 LCD용 확산판, LCD용 프리즘 시트, PDP용 AR 및 EMI 차폐필름, 각종 전자정보재료에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특히 광학용 필름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고화도를 위해 투명성은 물론 결점이 없는 무결점 기술을 수반한 첨단기술력이 필요하다.

현재 광학용 베이스 필름의 시장규모는 국내 시장 연간 350억원, 세계시장 연간 1600억원의 규모로 세계시장은 매년 15% 이상, 한국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도레이새한은 라인이 완공될 경우 이 부문에서만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IT 산업의 핵심소재인 광학용 필름이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주)코오롱

현재 7개 라인(해외 1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78,000M/T의 생산캡파에 수출 40,000M/T, 내수 25,000M/T을 소화하고 있는 (주)코오롱은 1985년 구미공장 라인 생산을 시작으로 96년 김천공장, 97년 인도네시아 라인을 생산 시작했으며 2002년 고향의 울산 공장을 인수하며 PET 필름 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코오롱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시작된 60여일의 파업에 따른 PET 필름 생산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자는 국내 PET

필름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은 환율 절상에 따른 수출용 오더(ORDER) 경쟁력 저하로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내수용 시장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전체적인 수요 감소세를 이루고 있다고 현 시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코오롱은 PET 필름 시장이 세계적으로는 예년 평균성장율(3~4%)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국내 성장을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포장용 PET 필름 시장의 경우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 여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주)화승인더스트리 ·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와 (주)효성은 각각 15,000M/T 규모의 PET 필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포장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출, 내수 비율을 살펴보면 수출면에서는 화승인더스트리가, 내수면에서는 효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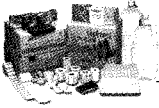
1997년 PET 필름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현재 10여종의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인쇄 및 증착용으로 30%, 전선용 20%, 라이엑스 20%, 스팅글 10%, 기타 30%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표 2] 나일론 필름 생산업체 동향

(단위 M/T)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주)코오롱	2	7,000	4,000	3,000
(주)효성	2	6,400	4,200(기대치)	2,200
하니웰코리아(주)	2	9,000	7,000	2,000



시장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에 따른 PET 필름 업계의 침체가 예상된다

## 2. 나일론 필름

### 2-1. 나일론 필름 생산업체 동향

#### 1) 하니웰코리아(주)

2003년 6월부터 코오롱으로부터 인수받은 당진공장에서 나일론 필름의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하니웰코리아(주)는 우리나라경기의 불황과 환율의 원화가치 상승인한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수출물량이 줄어들며 총체적 수요감소가 되고 있어 소규모 컨버터는 물론 대형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시장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어려움은 지속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니웰은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국내 시장을 Up grade 및 차별화 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하니웰코리아는 연 9,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7,000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0톤을 내수로 소비하고 있다.

하니웰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나일론 필름 수요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불경기의 여파로 올해 나일론 필름 성장은 보험세이거나 약 1~2%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2) 코오롱(주)

1991년 김천공장과 1997년 인도네시아 나일론 필름 라인의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주)은 7,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4,000톤을 수출하

고 있다.

최근 코오롱이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나일론 필름 공장은 2003년 말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5,400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되고 국내 생산량과 합칠 경우 연산 1만7,000톤 규모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 3위(11%)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코오롱은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시작, 현재까지 약 1억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온 결과 미쯔비시(Mitsubishi)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따돌리고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점유율 55%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필름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오롱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동남아 필름 시장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장필름에서 첨단 전자소재 필름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종합 필름 메이커로 발돋움할 계획인 코오롱은 그러나 현재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은 경기 침체로 1/4분기 감소되었고 2/4분기 다소 회복세이나 예년에 비해서는 아직 부진해, 세계적으로는 5~8%의 성장율이 예상됨에도 국내시장은 예측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 3) (주)효성

지난해 말 나일론 필름 라인을 1개 신설하면서 2개라인을 보유하게 된 (주)효성은 6,400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지난해 2,800톤의 생산 능력에 비교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주)효성은 향후 나일론 필름의 수출에 주력, 올해 말 4,200톤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II. 결론

국내 PET 및 나일론 필름 시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업계는 어느 포장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어려움과 중국 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ET 필름 시장 성장이 연평균 15%에 이르고 있는 중국은 PET 필름 생산 능력이 약 15만톤 규모로 약 3만톤 규모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성장세가 10%를 상회하는 중국 PET 필름 시장을 겨냥해 듀폰 등 세계 주요 PET 필름 메이커들이 중국 PET 필름 생산 설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 약 26~28만톤 규모의 잉여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PET 필름 생산 업체에게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PET 필름 설비의 증설이 대부분 포장용 필름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는 IT 소재용 필름, 초극박 필름 등 비포장용 필름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

E-mail : kopac@chollian.net